

박물관의 재발견 휴식 재미 만끽하자

고관화박물관 '숲속 관화학교' & 목아박물관 박물관학교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불교박물관에서 문화예술과 불교를 배우고 느끼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휴가 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 원주시 치악산 명주사의 고관화박물관(관장 선화, 033-761-7885)은 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하는 숲속의 관화학교'를 개설, 운영한다. 7월 25~26일과 29~30일, 8월 1~2일과 8~9일 모두 4회에 걸쳐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의 템플스테이를 겸한 문화체험을 위해 '숲속의 관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1박2일 코스로 진행되는 관화학교는 박물관 견학과 목판화 제작 체험, 판화를 이용한 전통 책 만들기, 다도체험, 예절교육, 아침산행, 명상, 다례, 단체관화 찍기, 감자 굽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진행된다. 또 24~25일에는 '대학 박물관과 함께하는 숲속의 관화학교'도 열리며 내달에는 서울 중구청 어린이집과 함께 하는 '장애우를 위한 관화학교'와 '노인을 위한 관화학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숲속의 관화학교'에서 목판화를 제작 중인 가족의 모습이 정겹다.

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관화박물관(www.gopanhwa.or.kr)은 명주사 주지 선화 스님이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인도 등 동양 각국의 고관화 자료들을 수집해 전

시한 곳으로 목판원본 1800여 점을 비롯해 고관화 작품 300여 점, 목판 서책 200여 점 등 모두 25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선화 스님은 "자연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명상을 하는 이번 행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무지엄스데이"를 모범적인 휴가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역사의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2009년 제14기 여름 박물관학교'를 연다.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학교는 8월 18~19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헤이리예술마을, 목암미술관, 중앙미술관, 임진각, 제3땅굴(DMZ 영상관), 도리산 전망대, 증경박물관 등 파주시, 고양시 일원을 답사한다. 또 피자 만들기, 고구마 구워먹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이뤄진다.

목아박물관(www.moka.or.kr)은 "이번 여름학교는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DMZ 연계관광으로 평화와 생태의 조화를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3~5일, 선착순 40명만 접수(031-885-9952)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hanmail.net

나옹 선사 추모 행사 '풍성'

괴산 흥천사 8월 16일까지 '나옹 선사 천복문화예술제'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靑山兮要我以無語)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蒼空兮要我以無垢)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無愛而無憎)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無怒而無惜)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如水如風而終我)."

나옹(懶翁, 1320~1376) 선사의 유명한 전서 '청산은 나를 보고'가 탄생된 괴산 흥천사에서 선사를 추모하는 문화예술제가 열린다.

세계불교법당청 총본산 흥천사(조실 동봉)가 주최하는 '나옹선사 천복(天福)문화예술제'가 7월 12일 개막했다.

지역경제 살리기 및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 하는 먹거리 지역특산물 시식 체험 행사를 겸한 이번 행사는 12일 오후 2시 풍물놀이로 이어 난타공연, 타목 퍼포먼스, '청산은 나를 보고' 음성 공양, 괴산어리랑 부채춤, 신립 장군 극락무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 불사 원로 가수인 남궁수, 금사향, 김활선씨 등의 공연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노래 한마당 등 산사음악회도 열린다.

흥천사는 이와 함께 8월 1일에는 천복예상 시상식과 '나옹선사 문화의 밤' 행사가 개최되는 등 16일까지 문화예술제를 진행하며, 이 기간 태극양실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도 공개한다.

고려 말기의 고승으로 공민왕의 왕사를 지낸 나옹 선사는 인도의 고승 지공 화상의 제자이며, 무학 대사의 스승이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장건한 흥천사에서 머물면서 '참선곡(參禪曲)'을 지었다고 전해온다.

신라 선덕여왕 11년에 창건된 흥천사는 원효·나옹·무학 대사가 정지한 유서 깊은 도량이다. 암행어



나옹해인 선사 진영.

사 박문수가 흥천사에 머물면서 쓴 비석이 남아 있다. (043)833-5525

김성우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교예술 포교 기틀 마련하겠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초대 이사장 초격 스님

"불교청소년 관현악단 설립 등 불교종합예술단으로 발돋움해 포교와 신행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17주년을 맞은 불교계 대표 청소년 포교단체인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둔 초격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사진)이 7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포교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님은 "출가승으로서 포교는 생사를 담보한 수행"이라며 "불교 포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미진해 늘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20여 년간 어린이포교 등 불교 씨앗 심기에 앞장서 왔다. 초격 스님을 이사장으로 이사진 등을 구



성한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은 연내 사단법인 추진을 비롯해 뮤지컬 '손오공' 공연 등 다양한 음성 포교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3월까지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을 설립하고 지역지부를 개설하는 등 불교를 대표하는 종합예술단으로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초격 스님은 "어렸을 때 불교합창 등을 접한 아이들이 성악 등을 전공해 다시 불교계 포교저변확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불사는 포교 영역을 넓히고, 문화예술 포교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임원진 취임법회는 7월 17일 오후 6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후원회법 공연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전통다례 무료 체험

경북공서 10월까지

문화재청·명원문화재단

7월부터 10월까지 경북공서에서 전통 다례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강민)과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일반에 상시 개방된 경북공 내 건청궁에서 매일 첫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다.

참가자들은 전통차 예절을 배우고 전통차를 맛볼 수 있으며, 차 문화사, 차의 종류와 제다법, 차의 효능도 배울 수 있다. (02)3700-3919

김성우 기자

"가슴 속에 추억 안고 가세요"

공주 마곡사 토요일 작은음악회 열려... 12월까지 매주 공연

"조용히 타르르는 저 언덕길에 살며서 떠오르는 너의 모습 영상 속에 스며드는 너를 찾아서 작은 들길을 걸어갑니다."

80년대를 풍미했던 '사랑의 두 옛(김재성, 안혜경)' 멤버 안혜경(사진)이 이제는 소녀가 아닌 중년의 원숙함으로 부르는 '영성'은 해질녘 공주 마곡사 계곡에 잔잔하게 울려 퍼져 한여름밤을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마곡사 계곡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엔 이렇게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관중이래야 고작 40~50명, 출연진은 사회자 한 명에 가수 한 명이다. 6월 27



록하겠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중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의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정도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coi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l로 평소 180mg/dl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하 효과를 거두었다.

“현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하며 생각하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 나무어미타를 열매와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때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는다.
-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된다.
- 활용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찜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 플름: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coi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조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의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영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장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정도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

7월 첫 출하를 앞두고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불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